



“학교 보건은

어릴때부터의 보건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라고 말하는 李寬熙씨.

주어진 환경 속에서 끝없이 일을 찾아 해결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李寬熙씨(34세,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동 교육청 학무과 사회체육계 보건기사보). 그는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다.

그가 학생 보건 관련 업무에 몸을 담은지는 6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그에게 있어서의 삶의 목표는 학생의 건강 보호를 위한 모든 일에 자신을 바치는 것이었다.

『현재 성주에는 양호교사가 4명 뿐입니다. 학생 건강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양호교사의 절대 부족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 교과과정에 보건에 관련된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李寬熙씨는 성주내 학생건강관리를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재 있는 양호교사들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학교간의 애로사항이나 정보 교환을 위해 매월 1회씩 양호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기도 해 당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대구보전을 졸업했으면서도 자신이 맡은 일을 좀더 과학적으로 해내기 위한 지식을 쌓기 위해 대구대 사회복지과에 입학 지난 '85년 졸업장을 따내, 주경야독(晝耕夜讀)의 열의를 보여주기도 했다.

『학생 건강을 위해서는 건협외 심장병이나 기타 질병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 검사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전문기관적 측면에서 학생, 교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적용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보는

2세 교육에 있어서의 기반이죠”

성주군 교육청 학무과 사회체육계 보건기사보 李寬熙 씨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건협, 국가 모두를 위해서 말입니다.』하며, 이씨는 정기건강검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했다.

’83년 경북 교육위원회 보건직 친목회를 조직,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학교보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연구 토의하기도 해온 이씨는, 『일은 하려고 하면 많고 안하면 적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다 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자신의 좌우명은 “성실과 최선”이라고 밝힌다.

그는 또 『학교보건은 2세를 키운다는 입장에서 잊혀져서는 안되는 분야입니다. 어릴 때부터의 보건교육을 통해 성장후의 예방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가 정착되지 않겠습니까?』라며, 학생 보건 관리를 위한 인원과 조직 보강에 관계기관이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인다.

『사실 제가 남보다 훌륭한 일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기왕 이렇게 저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겼으니, 제가 한 얘기들이 보건 담당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더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며 말을 맺는 그의 진지한 얼굴을 보며, 우리는 이사람으로부터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李寬熙씨는 부인 이진희씨(31세), 여섯살난 딸 “아름”양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범 가장이기도 하다.

